

●여동구 광주홍북학원 이사장 시조집 발간

“벼랑 끝으로 향하고 있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후위기 시대, 바로년부터 바뀌어가는 생각으로 이번 시집을 출간했습니다.”



“더 이상 외면 안 될 기후위기 아름다운 자연 물려줘야”



무심코 버려왔던 일상 속 행동 되돌아보는 환경보호 중요성 담은 100여편 작품 수록

여동구 광주홍북학원 (대광여고, 서진여고·사진) 이사장의 시조집 ‘심해지는 기후 재앙 내 탓입니다’ (심미안)가 최근 발간됐다. 이 책은 평소 기후위기,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던 여 이사장이 지난 몇 년 동안 써낸 시조 작품 100여 편을 엮은 결과물이다. 여 이사장은 학교 현직에 있을 당시 급식 잔반 남기지 않기 캠페인과 광주시민 대상 환경 교육 지도 등을 이어오며 누구

보다 환경보호를 주창하고 있는 장본인이다. “요즘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먹음 만능만 먹고 잔반을 최대한 줄이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또 식사 후에는 카페 일회용품 컵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요. 일상 속 별 생각 없이 하는 우리 행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데서부터 환경 보호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다. 재앙에 처한 지구 생태계 현실과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내용의 1부 ‘자연 재앙, 그 앞에서’, 환경 문제에 대한 갖가지 상식을 담은 2부



‘상식과 경고’, 급격하게 변화한 현대사회 속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도리 등을 담은 3부 ‘수필·시조’ 부분이다. 여 이사장은 바다 생물이 사라져가고 아이슬란드 빙하가 녹아가는 등 심각한 기후위기에 처한 지금의 세태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빈부격차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도 차이가 난다는 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같은 무더위에도 에어컨조차 사용할 수 없는 서민들은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는 세대 간에도 큰 차이가 납니다. 옛날과는 달리 요즘에는 전기며 먹음의 것이며 아까지 않고 사용하는 분위기잖아요. 기후위기로 인한 인류 멸종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졌으면 했죠.” 시집 표지 사진으로 실린 새들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이미 새가 아기 새에게

먹이를 먹여주는 장면으로, 지금 현재의 자연 환경을 잘 보호해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자는 의미를 담아냈다. “마이크 라이너스가 쓴 ‘6도의 멸종’을 한 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일어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1도가 오르면 북극 얼음이 녹아 북극곰이 사라지고, 2도가 오르면 마이애미·상하이·보스턴·인천·목포·부산 등이 물에 잠긴다고 해요. 3도가 오르면 농사 지을 땅이 없어지고 평균 기온이 6도까지 오르면 생물의 95%가 멸종한다고 합니다. 여기엔 인류도 포함되겠죠.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더라도 더 이상 끔찍한 지구구를 만들지 말자고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에서 책을 펴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애써 외면해왔던 평소 행동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최명진기자

새로 나온 책



▲아마릴리스 사랑=황금련 저자
황금련 수필가가 등단 14년 만에 첫 수필집 ‘아마릴리스 사랑’을 펴냈다. 이 책은 사람 사는 이야기다. 단순한 삶이 아니라 자연에서 피고 지는 꽃과 생황, 주변의 다감한 사물을 통해 가족과 친지들의 생사를 풀어내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농익은 시선으로 지켜본 삶의 아픔과 죽음이 애처로우면서 담담하게 그려진다. 박양근 문학평론가는 “이러한 삶의 지형도는 작가의 깊은 신앙심과 묵힌 체험에서 우러난 인생론이라 할 수 있다. 사철 피고 지는 꽃과 나무를 은유한 기법 덕분에 서정이 서사로, 서사가 서정으로 호환시켜 그녀만의 소담한 인생 정원을 꾸몄다”고 평했다. /작가마을·1만5천원



▲신생대의 여섯 번째 꼬리뼈=하승무 저자
1994년 계간 한겨레문학에서 등단한 하승무 시인이 등단 30년 만에 첫 시집을 펴냈다. 하승무 시인의 시는 ‘생명시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의 주요 대표 시편들은 다른 문인들이 패러디할 수 없는 독창성과 심층적 구조, 엄격한 요소가 돋보인다. 송영목 고신대 신학과 교수는 평론을 통해 “인간의 아픔의 원인, 고통의 증상을 파헤치는 시인의 관점은 독특하다”며 “시인은 시대정신을 비평하는 거칠고 날카로운데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소망과 답을 찾으려 하며 지혜로운 실존적 결단을 독자에게 촉구한다”고 평했다. /커리타스·2만1천원



▲타운하우스=전지연 저자
2023년 한국일보와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며 ‘신춘문예 2관왕’으로 화제를 모은 소설가 전지연이 불과 등단 1년 만에 첫번째 소설집을 출간했다. ‘타운하우스’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이나 작은 틈에서 시작된 붕괴의 조짐을 상징하는 공간이다. 무언가 깨지고 있음에도 그 파열을 드러내지 않으려 인간됨을 쓰거나 일상의 균열을 예감하며 불안해하는 인물의 목소리를 전지연은 차분하고도 태연하게 서술하는 특징점을 발휘한다.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된 아이의 부모, 부대 내 사건 은폐에 가담한 남편을 둔 아내 등 선부르게 선악을 가릴 수 없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사안을 정면으로 파고드는 작가의 독심이 미묘하다. /창비·1만2천원



▲언제나 내 이름=류효선 글, 박정섭 그림
언제나 어른들에게 칭찬을 듣고 싶고, 빨리빨리 대신 언제나 자기만의 속도로 지내고 싶은 여덟 살 토리가 어린이 독자들을 다시 한번 찾아왔다. 어린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름표를 받는다. 도토리라는 이름표를 당당하게 달고 입학한 토리 앞에서, 할머니는 눈물바다를 이룬다. 내 이름이 뭐라고 할머니는 저렇게 슬피 우는 걸까. 매일 말하고, 듣고, 쓰면서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지 않던 이름에서 여덟 살 토리는 오늘도 세상을 배운다. /사계절·1만원

빛고을 영화 지평을 담다... ‘광주 영화인 열전’

김수진 씨 1980 전 편집장 저서...지역 영화인 인터뷰 등

광주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담긴 책이 발간돼 눈길을 끈다. 광주 최초의 영화비평서 ‘신1980 김수진 전 편집장이 펴낸 ‘광주 영화인 열전’(키노북스)이다. 신1980 창간준비호부터 17호까지 진행한 인터뷰들을 한 데 엮은 책으로,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광주 지역 영화인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2018년 지역 최초로 청룡영화상 단편영화

상을 수상한 허지은, 이경호 감독(수상작 ‘신기록’) 인터뷰를 필두로 지역 안팎에서 오랜 시간 독립영화를 촬영해온 오태승 감독 등 지역 영화 창작자의 고충과 보람을 실었다. 또 (사)광주영화영상인연대 구성원들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국제영화제 파행 사태 이후 퇴색된 ‘광주 영화’ 이미지 제고와 지역 영화 정책의 안정화를 위해 어떠한 각고의 노력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1953년 전국 유일의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설립 이후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최남주, 정준채 등 지역 영화인들의 이야기도 있다. 이들의 명맥을 이어받아 1980년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된 광주비디오들, 1990년대 극단 토박이가 제작한 5·18 소재의 실험적인 독립영화, 그리고 2000년대 우후죽순 생겨난 광주 영화동아리에 대한 기록도 담겨 있다. 저자 김수진은 “광주에도 영화하는 사람

들이 있음을 지역 안팎에 알리기 위해 책을 펴내게 됐다”며 “지역 영화인들에 대한 공적이면서도 사사로운 기록인 열전(列傳)이자 주류 영화계에 대항하는 지역 영화인의 열전(熱戰)의 장으로서 이 책이 가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영화인 열전’은 독립출판 온라인 서점 ‘인디랩’, 알라딘, 예스24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한편 저자 김수진은 전남대 독일언어문학학과 졸업했으며 동 대학원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기획 석사 졸업 및 문화학과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무비스트’, ‘코야르’, ‘광주in’을 통해 영화 글을 써왔으며 광주 영화비평서 ‘신1980’ 편집위원 및 편집장을 역임했다. /최명진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상주지국 061)335-0005
- 광양지국 061)793-6800
- 구례지국 061)782-4696
- 담양지국 061)383-5566
- 곡성지국 061)362-5746
- 여수지국 061)851-6433
- 보성지국 061)852-6644
- 화순지국 061)373-7795
- 장흥지국 061)863-6800
- 강진지국 061)432-8899
- 해남지국 061)535-5849
- 영암지국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평지국 371-9584
- 수완지국 955-0451
- 광신지국 944-0993
- 무안지국 061)453-3645
- 함평지국 061)322-0882
- 영광지국 061)353-5133
- 장성지국 061)394-3636
- 완도지국 061)555-0134
- 진도지국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